

2010년 8월 9일 보낸 편지입니다.(1,763조회)

말타는 소녀
馬乗りの少女

몽골의 유목민 마을에 가서 말을 탄다.
モンゴル遊牧民の村に行つて馬に乗つた

처음 타는 사람을 위해 고삐를 끌어주는데,
初めて乗る人のために、綱を引いてくれるが

겨우 대여섯 살이나 됐을까 싶은 소녀다.
わずか5, 6歳になるかどうかの少女だ

머리를 양증맞게 두 갈래로 땀은 소녀는 말을 끌고
頭をかわいく二つに分けて結つた少女は、馬を引いて

나풀나풀 초원의 구릉을 넘어 간다.
ひらひら草原の丘陵を越えていった

말과 나와 소녀는 혼연일체가 되어
馬と私と少女は、渾然一体となつて

초원속으로 묻혀버린다.
草原の中に埋まつてしまつた

- 윤후명의 《꽃》중에서 -
- ユン・フミョンの〈花〉より -

* 말을 타는 유목민 소녀의 경쾌한 모습이
* 馬に乗る遊牧民少女の軽快な姿が

눈에 선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르른 대초원과 함께
目に焼きついています。終わりなく広がる青い大草原とともに

마치 한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여행을 다녀오면 누구에게나
まるで一幅の絵のようです。旅行に行つて来れば、誰にでも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의 그림이 마음에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一生忘れることができない思い出の絵が、心に残るようになるものです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려보는 것 만으로도
私の心の中に残っている、描いてみることだけでも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추억의 그림,
心が平和になる思い出の絵

말타는 소녀의 모습입니다.
馬乗り少女の姿です

(2004년 6월 17일자 앙코르 메일)

나풀-나풀
[부사·하다형 자동사] ひらひら。[큰말]너풀너풀
선; -하다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あざやかに)目にちらつく;脳裏に焼きついている;耳にこびりついている。

20100809.txt

한 폭의 그림 → 폭2
一幅の絵画

2010년 8월 10일 보낸 편지입니다.(2,144조회)

큰 뜻
大志

큰 뜻을 함께 하는
大志を共にする

한 모임 안에서도 인격적 결함이나
ある集まりのなかでも、人格的欠点や

미성숙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적지 않은 갈등이
未熟によって、お互いに小さくない葛藤が

빛어지곤 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갈등과 불행은
もたらしたりするのを見ながら、世の中の全ての葛藤と不幸は

사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私心から始まることだという父の言葉に

새삼 크게 공감하였다.
いまさらだが、大きく共感した

- 이남순의 《나는 이렇게 평화가 되었다》중에서 -
- イ・ナムスンの<私はこのように平和になった>より -

* 사심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 私心にも方向があります

오로지 자기 혼자만을 위한 방향이냐,
ただ、自分ひとりだけの方向なのか

아니면 다른 사람까지를 위한 방향이냐,
そうでなければ、他人までの方向なのか

혼자만 잘 살자는 것이냐 함께 잘 살자는 것이냐...
一人だけよく生きることなのか、一緒によく生きることなのか

아무리 '큰 뜻'도 끝내 혼자만을 위한 것이면
いくら'大志'でも、結局一人だけのためのことなら

그저 사심에 머무는 것입니다. 진정한
そこに、私心にとどまることになります。本当の

'큰 뜻'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大志'は、他人と共に

함께 잘 사는 것입니다.
一緒によく生きることです

큰 뜻을 품다. → 뜻
大志を抱く。

결함 [缺陷]

[명사] 欠陥; 不備な点があること; 欠点。

미:-성숙 [未成熟]

[명사·하다형 형용사] 未熟。

<1> [명사·하다형 형용사] 果物·食物などがまだ熟していないこと。

빛어지다 . もたらず.

사심 [私心]

[명사] 私心。

<1> [명사] 私利私欲をはかる心;利己心。

새삼-스럽다

<1> {형용사·ㄹ 불규칙 활용} (過去に対する感情が)今更のようだ;こと新しい。

<2> {형용사·ㄹ 불규칙 활용} 過去を徒に取り出す感がある;今更でもない。

오:로지

[부사] ひたすら;もっぱら;一途に;ただ;ひとえに。

머무르다

<1> {자동사·ㄹ 불규칙 활용} 止まる;停止する;停泊する。

<2> {자동사·ㄹ 불규칙 활용} (一定の所に)とどまる;居残る。

더볼다

[자동사][타동사] 不完全動詞。

<1> [자동사][타동사] 助詞‘와·과’の後に付いて‘더불어’の形で使われる;いっしょにする;共にする;伴う;連れる。

2010년 8월 11일 보낸 편지입니다.(4,684조회)

웃음을 머금고 그림을 그려라
笑いを含んで、絵を描きなさい

“얼굴엔 웃음꽃이 피고 사람마다 유쾌하다.
”顔には笑いの花が咲いて、人毎に愉快だ

행복한 이를 그리려면 하루 종일 웃으며
幸せなこれを描こうとすれば、一日笑いながら

그려야 한다. 아이를 그릴 때도,
描かなければならない、子供を描くときも

나를 그릴 때도.”
私を描くときも”

행복한 이의 표정을 담기 위해선,
幸せなこれの表情を盛るために

담는 이부터 웃음을 머금어야 합니다.
盛るこれから笑いを含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 속에서 일상의 황홀을 발견하고
その中から、日常の恍惚を発見して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感謝できる心を

가져야 합니다.
持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

- 김홍기의《하하미술관》중에서 -
- キム・フングの<ハハ美術館>より -

* 웃음을 머금고 인생의 그림을 그리세요.
* 笑いを含んで、人生の絵を描いてください

걸을 때도, 일할 때도, 말할 때도 웃음을 머금으세요.
歩くときも、働くときも、話すときも、笑いを含んでください

춥고 아프고 외롭고 괴로울 때도 웃음을 잃지 마세요.
寒く、いたく、さびしく、つらいときも笑いを失わないでください

웃음을 머금는 것이 곧 행복을 머금는 것입니다.
笑いを含むことが、まさに幸せを含むことです

내 안에서도 행복과 기쁨이 솟아나지만
私の中にも、幸せと喜びがあふれるが

다른 이에게도 행복과 기쁨을
他の人にも、幸せと喜びを

안겨 줍니다.
抱かせてくれます

머금다

[타동사] 含む。

<1> [타동사] (口の中に)含む。

담:다

<1> [타동사] (器に)盛る;よそう;入れる。

<2> [타동사] (うわさ, 悪口などを)口にする;口に出す;話題にする。

황홀 [恍惚·悦惚·慌惚]

[명사·하다형 형용사] 恍惚;心を奪われてうっとりするさま;エクスタシー。

2010년 8월 12일 보낸 편지입니다.(3,012조회)

선인장
サボテン

그 분은 선인장을 매우 좋아했다.
その方はサボテンをととても好きだった

언젠가 내가 물었다. "스와미지, 왜 그렇게
いつか私が聞いた"スワミチ、なぜそんなに

선인장을 좋아하십니까?" 그분이 답하셨다.
サボテンをすきなんですか?"その方が、答えた

"난 가시가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私がとげがいっぱいで、全ての人々が嫌う

사람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
人を好む習性がある

그들이 꽃피우는 것을 볼 때
彼らが、花咲かせることを見るとき

내게 큰 기쁨이 온다."
私に大きな喜びが来る"

- 스와미 라마의《히말라야 성자들의 삶》중에서 -
- スワミ・ラマの<ヒマラヤ聖者たちの生>より -

* 사람도 선인장과 같습니다.
* 人も、サボテンと一緒にです

저마다 크고 작은 가시를 품고 있습니다.
私ごとに、大きく、小さいとげを抱いています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스스로 찌리기도 합니다.
他人をさしたり、自らを指したりします

처음에는 아파서 견딜 수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初めは痛くて耐えられないが、時間がたてば

'아름다운 상처'로 꽃피워 있는 것을
'美しい傷'に花開いていることを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ある瞬間、発見するようになります。

기쁨의 순간입니다.
喜びの瞬間です

성:자 [聖者]

[명사] 聖者。

<1> [명사] 聖人。

찌르다

<1> {타동사·르 불규칙활용} (針·刀などで)突き刺す;刺す;突く。

<2> {타동사·르 불규칙활용} さし込む;つつ込む。

20100812.txt

스와미 라마(Sri Swami Rama)
スリ・スワミ・라마

2010년 8월 13일 보낸 편지입니다.(1,547조회)

스승은 가끔 제자를 시험한다
師匠はたまに弟子を試す

스승은 가끔 제자를 시험한다.
師匠はたまに試験する

그는 어떤 비밀을 한 제자에게 말하고,
彼はある秘密を、一人の弟子に話し

또 다른 제자에게도 그 비밀을 말하고 나서
他の弟子にも、その秘密を話した後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二人にこのように話す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
“誰にもこれを話してはいけない”

그러면 어떤 제자들은 서로에게 비밀을
そうすれば、ある弟子たちはお互いに秘密を

은밀히 이야기하게 된다. 이것으로 스승은
隠密に話すようになる。それで師匠は

제자가 아직 더 큰 비밀을 간직할 준비가
弟子がまだ大きな秘密を大切に作る準備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できてないことをわかる

- 스와미 라마의《히말라야 성자들의 삶》중에서 -
- スワミ・ラマの〈ヒマラヤ聖者たちの生〉より -

* '비밀'뿐 아니라 '작은 일'로도
* '秘密'だけでなく'小さな仕事'でも

스승은 제자를 이따금 시험합니다.
師匠は、弟子をたまに試します

아주 작은 일을 맡겨놓고 그 일에 얼마나
とてもちいさい仕事を任せて、その仕事にどれだけ

열심히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가, 얼마나 감사하며
熱心に忠誠しながら、最善を尽くすのか、どれだけ感謝しながら

좋아서 하는가를 보고 더 큰 일도 맡기게 됩니다.
よくするかを、みてさらに大きな仕事も任せるようになります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一番重要なことは、信頼です。信頼を失えば

비밀의 문도 닫히고 작은 일도 잃게 되지만,
秘密のドアも閉まって、小さな仕事も失われるが

믿음을 얻게 되면 그 어떤 비밀도 기꺼이
信賴を得れば、そのどんな秘密も喜んで

드러내고 더 큰 일도 믿고 맡깁니다.
表に出して、さらに大きな仕事を信じて任せます

간직-하다

{타동사·여 불규칙 활용} (大事に)しまっておく;保管する;保存する;維持する。

충성 [忠誠]

[명사·하다형 자동사] 忠誠。

드러-내다

<1> [타동사] 表に出して示す;表わす;目立たせる;露にする;さらけ出す。

<2> [타동사] (名を世に)揚げる;とどろかす。

20100814.txt

2010년 8월 14일 보낸 편지입니다.(888조회)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조송희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チョ・ソンヒ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여름밤
夏の夜

밤의 고요가 밀려왔다.
夜に静寂が押し寄せた

집집마다 저녁 연기가 피어 오르고,
家ごとに、夕方煙が立ち昇って

회색 지붕들은 서서히 여름밤 안개 속으로 잠겨 갔다.
灰色の屋根は、徐々に夏の夜の霧の中に沈んでいった

제일 높은 산봉우리만이 여전히 푸른 하늘 속에서
一番高い峰だけが依然として青い空の中に

마지막 햇살을 받고 있었다.
最後の日差しを受けていた

- 이미륵의《압록강은 흐른다》중에서 -
- イ・ミルクの<鴨緑江をながれる>より -

* 이번 휴가는
* 今回の休暇は

지리산 칠선계곡 근처의 허름한 농가에서 보냈습니다.
智異山七仙溪谷近所のみずぼらしい農家でおりました

산행에서 지쳐 돌아 오던 저녁 무렵, 동네 어귀에서
山行から疲れて戻って来た夕方くらい、街の入り口で

아스라히 피어 오르던 저녁 연기에
かすかに立ち上っている夕方の煙に

왠지 목이 메었습니다.
なぜかのどが咽びました

집 주인은 우리가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家の主人は私たちが帰ってくる時間に合わせて

치자빛 반죽을 개어 호박전을 부치고 있었지요.
くちなしの花の練りものを練って、かぼちゃチヂミを焼いていました

그 날 우리 아이는 묵은지와 나물 반찬에 밥을 세 그릇씩이나
その日うちの子供は、泊まった人とナムルのおかずにご飯を3杯も

비웠습니다. 푸른 안개 속에 고요히 깊어 가던 그 여름밤,
おわかりしました。青い霧の中に、静寂が深くなった、その夏の夜

오래도록 그리울 것입니다.
ずっと懐かしいだろう。

고요

<1> [명사] 静かなこと; 静けさ; 静寂。

<2> [명사] 風力階級のゼロ級に当たる風。

밀려-오다

[자동사] 押し寄せる。

회색 [灰色]

[명사] 灰色。

<1> [명사] 灰のような薄ネズミ色。

지붕

<1> [명사] 屋根。

<2> [명사] 覆い。

서:서-히 [徐徐—]

[부사] 徐々に; ゆっくり; おもむろに; やおら; じわじわと。

안:개

[명사] 霧; 靄。

잠기다2

[자동사] ‘잠그다2’의受動。

<1> [자동사] (水に)漬かる; 浸る; 沈む。

산-봉우리 [山—]

[명사] 峰; 山嶺; 山の峰。[동의어] 산령(山嶺)

あい変わらず → あい

여전히

압록강 鴨綠江

지리산 智異山

칠선계곡 七仙溪谷

허름-하다

<1> {형용사·어 불규칙 활용} (値段が)安い; 安そうだ。

<2> {형용사·어 불규칙 활용} 少し古びている; くだびれている; みすばらしい; もの足りない。

산행 [山行]

[명사·하다형 자동사] 山行; 山歩きをしに行くこと; 山へ行くこと。

무렵

[의존명사] 頃; 時分; 折り。

어귀 [←於口]

[명사] 入り口。

아스라히 かすかに

목이 메다. → 메:다1

むせぶ。

<ち-なしぞめ [梔子·山梔子染め]

[명사] 치자빛으로 물들임.

반죽

[명사·하다형 타동사] 練りこねた[ねった]物; 練り; こねること; 練ること。

개:다2

[타동사] (粉などを)こねる; 練る。